은행권 하반기 채용 단비…광주도 최대 규모

우리銀 전년비 2배 600명…KB 현장면접 합격 400명

광주은행 역대 최대 기대…케이뱅크 등 IT 은행도 동참

상반기 채용 가뭄을 겪던 은행권이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춰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을 포함한 지역은행과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시 채용도 이어지고 있어 침체된 취업시장에 '단비'가 내릴 전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NH농협,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등은 올해 하반기 공채 규모를 늘리는 것은 물론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국내 고용시장 안정화에 힘쓸 예정이다.

◇공채규모 늘리고 청년 구직 프로그램 가동=KB국민은행은 지난 14일 찾아가는 현장면접 합격자 400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하반기 신입행원 공채에서 서류전형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국민은행은 하반기 신입행원 공채에 앞서 지난 5월 부터 대전과 부산, 충북, 전남 등을 돌며 '찾아가는 현장면접'을 실시했다. 현장 맞춤 인재를 발굴하고 취업준비생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금융권 최초로 도입한 채용 프로세스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하반기 신규 채용인원 확대를 검토 중"이라며 "앞으로도 취업준비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 인재 채용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12일 노사 공동선언을 통해 올해 채용인원을 전년대비 2배인 60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상반기에 200명을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텔러)으로 뽑은 데 이어 하반기에 400명을 추가 채용한다.

취업준비생들을 위해 간접지원도 나선다. 우리은행은 270여개가 넘는 해외 점포망을 활용, 청년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해 해외 일자리 취업에도 도움을 준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우수한 성적을 받은 인턴 100명은 정규직으로 채용할 예정이어서 취업준비생들의 뜨거운 관심이 예상된다.

농협은행과 KEB하나은행, 기업은행 등도 하반기 공채를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채용 규모와 일정은 하반기 경영전략회의 이후 결정될 예정이다.

◇지역은행과 인터넷은행 채용 확대 적극 동참=광주은행 등 지역은행과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도 은행권 채용 확대에 동참하고 있다.

JB금융지주 계열의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은 올 하반기 채용 규모를 각각 50명 내외로 잡아 역대 최대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2년간 광주은행 연간 채용은 2015년 33명, 2016년 36명, 전북은행은 2015년 26명, 2016년 33명으로 유지해왔다. 두 은행은 채용 전체 인원의 80% 정도를 지역 대학에서 추천을 받는 식으로 채용하고 있다.

부산은행과 대구은행, 경남은행은 오는 9월경 하반기 채용규모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부산은행은 2014년 131명, 2015년 163명, 지난해 119명을, 대구은행은 꾸준하게 120명 내외를 채용해왔다.

오는 27일 출범을 앞두고 있는 카카오뱅크는 지난 5월 공채를 통해 IT전문가를 대거 채용했다. 모바일파트.빅데이터 파트.플랫폼 기술 파트의 세 분야에 걸쳐 진행된 이번 공채는 학력과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도 인력 충원에 한창이다. 지난 4월 출범 오픈 당일에만 4만여명이 가입한 케이뱅크는 경력직 공개채용을 통해 인재를 찾고 있다. 지난해 5월 처음으로 경력직 채용을 진행했고 올해 6월 8번째 경력직 채용을 진행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언급한 이후 은행들이 정부 기조에 따라 하반기 채용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슈퍼·철물점이 사라진다

도소매 자영업 19개월래 최소

채소가게나 옷가게, 슈퍼, 철물점 등을 주인 혼자 운영하는 도소매 영세자영업자가 사라지고 있다.

17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도소매 영세자영업자는 83만2000명으로 작년 말(85만1000명) 대비 약 1만9000명 감소했다. 2015년 10월(83만1000명) 이래 19개월 만에 최소다.

도소매 영세자영업자는 올해 4월부터 가파르게 감소했다. 4월에 전월 대비 1만명, 5월에 1만5000명 줄며 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체 도소매업 자영업자는 올해 5월 기준 118만9000명으로 작년 말(122만7000명)보다 4만명 가까이 줄었다.

올해 1월 123만1000명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이며 4월부터는 역시 2개월 연속 줄었다. 전체 자영업자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인데 도소매업에서는 감소하는 것이다.

특히 영세자영업자가 내수경기 부진으로 폐점이 많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원이 있는 도소매 자영업자는 5월 35만6000명으로 작년 말(37만6000명)에 비해 2만명 감소했다. 작년 말 이래로 매달 감소세를 이어왔다.

도소매업 업황실적 경기실사지수(BSI)는 3월 76에서 4월 79로 올라갔다가 5월 76, 6월 71로 하락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마트폰으로 공기질 측정 삼성전자 모델들이 기상정보 제공기업 케이웨더와 함께 공기 질을 측정해 쾌적한 환경 유지를 돕는 실내 공기 관리 특화 스마트폰 '에어가드K폰'을 사용해 보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뉴스테이 초기 임대료 규제·입주자격 제한

국토부 내달 공청회 후 확정

앞으로 주택도시기금이 지원되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에 초기 임대료가 제한되고 입주자의 자격요건도 강화될 전망이다. 또 도심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역세권 임대주택이 뉴스테이로 흡수돼 공급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뉴스테이 공공성 확보 방안 용역 중간결과를 김현미 장관에게 최근 보고했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LHI)의 용역 결과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음 달 국회와 정부, 전문가, 건설사,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뉴스테이 공공성 확보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LH연구원이 검토 중인 뉴스테이 개선 방안은 임대료 책정부터 입주자 선정까지 공공성을 대폭 보강하는 쪽으로 확 바뀐다.

우선 기존 뉴스테이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초기 임대료 규제가 가해진다.

정부는 뉴스테이에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 혜택을 주는 대신 초기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일정 수준 이상 낮게 책정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입주자 선정 기준도 무주택자, 신혼부부 우대 등으로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425.10 (+10.47)
- 금리 (국고채 3년) 1.75% (0.00)
- ⬆ 코스닥 659.89 (+5.78)
- ⬇ 환율 (USD) 1128.30원 (-5.00)

코스피 2425.10…날마다 새역사

코스피가 또 한번 장중 최고치로 마감했다. 17일 코스피지수는 10.47포인트(0.43%)오른 2425.10에장을 종료했다. 지수는 한 때 2430.34까지 올라 2430선을 터치하기도 했다.

이날 코스피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125억원, 387억원을 순매도했지만 기관이 1104억원을 사들이면서 상승을 견인했다.

이날 국내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삼성전자는 전일대비 8000원(0.32%)오른 253만2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어 SK하이닉스(0.14%), POSCO(0.79%), 한국전력(1.07%), 삼성물산(1.43%), 삼성생명(1.24%), KB금융(0.17%), 신한지주(0.41%)등이 상승했다. 반면 현대차(-2.27%), 현대모비스(-0.40%), SK텔레콤(-0.38%)등은 약세로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대비 5.78포인트(0.88%)오른 659.89에 장을 마쳤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 반대' 잇단 시위

곡성 사회단체 집회·김영록 광주세무사회장 1인 시위 등

금호타이어 매각협상이 이번 주 가닥을 잡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곡성군 사회단체 회원 10여명이 17일 광주시 광산구 산업은행 광주지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을 반대했다.

이날 이들은 "금호타이어가 중국 업체에 매각하면 곡성공장도 피해를 볼 것"이라며 "지역민의 고용안정과 생존권을 해치는 해외 매각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다음 달 12일까지 2인 1조로 산업은행 광주지점 앞에서 피켓시위를 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민주당 광주시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인 김영록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장도 KDB 산업은행 광주지점 앞에서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 반대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앞서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도 지난 11~12일 산업은행 광주지점 앞에서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김대성기자bigkim@

광주서 차세대 광학모듈 기술 교류회

오늘 과학기술진흥원…핵심공정·시제품 제작 기반 등 공유

차세대 '웨이퍼 렌즈·모듈' 대량 생산기술 확보에 성공한 한국광기술원(원장 김영선)은 차세대 광학모듈 기반 구축을 위한 기술교류회를 18일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선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융합 기반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하고, 한국광기술원 주관으로 추진된 '차세대 광학모듈 핵심공정 및 시제품제작 기반구축' 사업 추진 경과가 공유된다.

또 국·내외 광학모듈 전문가의 최신 기술동향 소개와 산업용 광학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광기술원은 산업용 광학렌즈 기술개발을 통해 자외선 경화수지와 열 경화수지를 이용, 내열성이 우수하고 소형·경량화에 이어 공정비용까지 획기적으로 줄인 웨이퍼 렌즈·모듈 대량 생산기술을 확보해 둔 상태다.

이번 기술개발과 관련 성과물은 오는 19일부터 서울 양재aT센터에서 개최되는 '오토모티브 테크놀로지 엑스포'(Automotive Technology Expo)를 통해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김영선 한국광기술원장은 "카메라용 광학모듈은 첨단기기의 눈에 해당되는 매우 중요한 분야로써 제4차 산업혁명 구현을 위한 핵심부품"이라며 "한국광기술원이 확보한 차세대 웨이퍼 렌즈기술을 기업에서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